



# 한마음혈액원 방배동에 새둥지 틀다

- 헌혈카페 17호 방배점 개소식

편집실

지난 10월 14일(금), 새로 문을 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방배점(이하 방배 헌혈 카페)을 찾았다. 방배역 3번 출구 맥도널드 건물 5층에 자리 잡고 있어, 한 눈에 찾기 쉽다. 유경빌딩에 들어서니 한사람의 헌혈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홍보물이 눈에 띈다.

‘헌혈’. 나를 포함한 남성들에게 헌혈은 대체로 초코파이처럼 달지 않다. 그리고 군대에서 ‘헌혈의 기억’은 자유의지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다들 지금도 기피하는 지도 모른다. 내무반에 일렬로 누워 있으면 의무병이 고무링으로 내 팔에 얼기설기 감는다. 손가락 두 마디쯤 되는 바늘을 보고 아픔을 느끼는 순간, 헌혈이 끝났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돌아선 기억도 스친다.

헌혈카페 방배점





좌로부터 김영주 대리, 성은경 과장, 홍정아 대리



헌혈카페 방배점 입구



전자문진 태블릿 PC

‘헌혈카페’라는 이름은 ‘헌혈의 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낯설다. 그러나 헌혈카페의 문을 여는 순간, 헌혈과 함께 카페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인터넷도 즐기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 비치된 여러 대의 태블릿 PC다. 헌혈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스로 전자 문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 조금 나가면 문진실이 있다. 혈액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진다. 더 안쪽은 헌혈공간이다. 중앙에 TV가 있다. 헌혈하면서 누워서 TV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헌혈베드가 총 8개이다. 자세히 보니 헌혈베드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 물어보니 방배 헌혈카페는 명동 헌혈카페를 이전한 것이라고 한다.

명동 헌혈카페는 1일 유동인구 10만 명인 명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헌혈자도 감소했다. 그나마 내국인들도 헌혈보다는 쇼핑에 관심을 더 보여 방배동 이전을 결정했다. 새로 동지를 튼 방배 헌혈카페는 근처 백석예술대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등 학생들과 주변 직장인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다



성은경 과장

들이 많은 곳이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가 가까이 있다. 어쩌보면 고향을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2000년 초, 초창기 한마음혈액원은 본부 건물에 상주하고 있었다. 방배 헌혈카페는 예전처럼 정기총회나 회의가 있을 때 직원들이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방배 헌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은경 과장에게 각오를 물어보았다. “방배 헌혈카페가 헌혈카페 중에서 제일 붐비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본부를 찾아온 직원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헌혈도 했으면 좋겠다.” 밝고 친절한 말투 속에 각오가 묻어났다.

올해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지역 확대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혈액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할 때 헌혈을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산업보건인이라면 ‘사랑의 실천’ 헌혈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방배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81 유경빌딩 5층  
전화 : (02)776-0522 ☎